



남원 대강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추진

남원시 대강면에서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이 가정방문 또는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 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건강 위 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내 필요한 보건·복지 자 원을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9일에는 시 농촌종합지원센터 사회서비스 팀과 '찾아가는 전(원)동기 안전점검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동 수단 안전점검 서비스와 동시에 건강상담을 제공하였다. 마을 어르신은 "평소 병원에 다니는게 번거로웠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에 찾아와서 건강상담을 해주니 편리하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주변지역 노후주택 보수 지원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적상면 초리, 중리마을의 소외계층 5가구를 선정하여 도배장판(3가구) 보수 및 싱크대 교체(2가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조수남) 위 원장 오대양의 노경합동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년 지속적인 사업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업지원뿐만 아니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어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노후주택보수 사업은 사각지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주생활공간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줌으로써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안전과 안부를 통한 안전한 무주민들에게 기여하고 있다. 조수남 소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추구와 발전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정읍시, 와락콘서트 25일 청소년수련관서 개최

제14회 와락콘서트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우리 가곡 '별'을 배워 부르고 모차르트 '클라리넷 콘체르토' 2악장 해설과 함께하는 음악강의가 진행된다. 또 콘서트 관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식과 실력이 풍부한 퀴즈 한마당이 열려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영락 관장은 "벌써 14회가 되어가는 와락콘서트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교양과 즐거움이 쌓이는 콘서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열심히 준비했으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가연회, 드림스타트 아동에 외식상품권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가연회(회장 손상훈)가 21일 가정의 달을 맞아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5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찬준 부시장과 손상훈 가연회 회장 및 회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팀 7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연회는 30대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로 모정 산골방면, 은빛가든, 광주복지, 송가네치킨, 완주1113, 수성축농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규모 봉사활동 추진과 후원금(품)을 기탁하는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외식상품권 후원은 회원들이 저소득층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 가정의 달을 맞아 양육자와 아동이 맛있는 식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다. 손상훈 가연회 회장은 "약소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칠보산 풍경 만끽

정읍시, 제4회 정읍내장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200여명 참가

정읍시 칠보산 활공장에서 열린 2024년 제4회 정읍내장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연습조종사, 조종사, 여성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정밀착륙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정밀착륙은 과녁판처럼 생긴 착륙 목표 지점을 바다에 놓고 참가자가 해발 280m의 칠보산 활공장을 이륙해 공중에서 비행한 후 바로 목표 지점을 찍으며 착륙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연습조종사, 조종사, 여성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정밀착륙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정밀착륙은 과녁판처럼 생긴 착륙 목표 지점을 바다에 놓고 참가자가 해발 280m의 칠보산 활공장을 이륙해 공중에서 비행한 후 바로 목표 지점을 찍으며 착륙하는 방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칠보산 활공장에서 열린 2024년 제4회 정읍내장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연습조종사, 조종사, 여성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정밀착륙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정밀착륙은 과녁판처럼 생긴 착륙 목표 지점을 바다에 놓고 참가자가 해발 280m의 칠보산 활공장을 이륙해 공중에서 비행한 후 바로 목표 지점을 찍으며 착륙하는 방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SNS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21일 도급 사업 현장소장과 공사감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SNS(오픈채팅방) 운영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 SNS(오픈채팅방)는 산업재해 예방 정착을 위해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안전문화 정착에 주된 내용이다. 주요 기능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사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공유하고,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데도 이바지 하게 된다. 오픈채팅방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에 접속하게 되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상호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고, 묻고 답하기 기능이 있어 업무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날, 안전보건협의회 5월중 정기회의도 진행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업무에 대한 의견 공유도 함께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오재준 지사장은 "SNS를 적극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 문화를 정착되도록 상호 노력하여 재해없는 공사현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구은행 iM한퇴산악회, 시중은행 전환 기념 동행순창 투어

최근 대구은행 iM한퇴산악회 회원 35명이 순창 강천산 일원을 방문하며 순창군과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이후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날 iM한퇴산악회는 순창 강천산 산행을 시작으로 인근 식당에서 중식 후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전통 식문화 체험을 하고 동행순창 협약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순창장류를 구입하며 순창을 응원했다. 대구은행은 1967년 국내 최초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이래 지역 경제와 금융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8일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어 iM뱅크로 다시 태어났다. /순창=이양원 기자



또한 향후 전북 영업망 거점 마련을 위한 전주지점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조경현 회장은 "이번 강천산 투어를 시작으로 iM뱅크와 순창의 힐링의 명소인 순창군이 상호 우호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축하하며 동행순창 협약을 통한 달빛동행 강화를 위해 iM뱅크가 전국구 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호남 상생협력 기반 마련에 협력하고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서, 제1고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지난 20일 순창제일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위 학교 진로 상담실에서 정래 경찰관을 희망하는 학생 9명을 대상으로 경찰직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일 강사를 맡게 된 순화파출소 이도형 신입 순경이 경찰관이 꿈인 학생들의 그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관과 질문을 주고받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관이라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전했다. 윤상현 서장은 "학생들이 경찰직업 체험을 통해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오수지구대, 전동차 사고 예방 형광 커버 부착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 오수지구대는 최근 영농철을 맞아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형광 커버 부착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주 이용 수단인 전동차에 시인성을 높이는 형광 커버를 부착하고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 박준성 오수지구대장은 "농촌 지역 특성상 전동차 운행이 많으나 야간 시인성 부족과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농기계 및 전동차에 야간 반사지, 형광 커버를 부착하는 등 농촌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백구면 농촌 일손돕기 나서

김제시(시장 정성주)치매안심센터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백구면 포도농가에서 21일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치매안심센터 민원 대응 필수인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으며 서부면 송씨압에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치매재활과 직원은 "포도수 제거 작업에 열심히 참여한 덕에 힘은 들었지만 우리가 먹는 포도가 이렇게 많은 정성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수확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소중한 체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시 치매재활과장은 "농촌 인구 노령화 등 인력수급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손길이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땀은 흘려도 마음은 너무도 기쁘다"며 "김제시 소속 공무원으로 농촌 살리기에 약간의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한 기분이다. 앞으로도 소중한 농촌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도통동 등, 농촌 일손돕기 나서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과 행정지원과(과장 김은영) 직원들은 21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동면 양계마을 복숭아 농가에서 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날 일손은 복숭아 봉지씌우기로 농가에서 일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직원들이 농가주 지도로 서부르지만 최선을 다해 봉지씌우기와 과수원 환경정비로 구슬땀을 흘렸으며, 격려와 현장을 방문한 이순택 부시장도 팔을 걷어부치고 일손 돕기에 나섰다. 농가주는 "날이 갈수록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 봉지씌우기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적기에 일손을 지원받아 감사드리고, 한시를 놓을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참여한 시청 직원은 "복숭아 봉지씌우기는 처음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복숭아 봉지가 씌워진 과수원을 보면서 후회없는 농가를 보니 뿌듯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정보통신과,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1일 금산면 청도리 소재 여주 농가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영농 지원을 위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1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작물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주 비닐밭 씌우기, 농작 주변 정리 등 작업을 하며 농촌 일손 부족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직원들은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생수, 간식 등을 직접 준비한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농가 대표 윤모씨는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함께 해준 직원들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어 수월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농촌 일손돕기가 일손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김제의 뿌리는 농업에 있는 만큼 매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이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